

나주시, 4년 만에 돌아온 '국제농업박람회' 개막 준비 박차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나주시 산포면 소재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4년 만에 다시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로 AI 기반 첨단 농업기술과 K-농업의 미래를 선보이는 세계적인 농업 축제로 치러진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AI 첨단 농업기술 전시, 미래 농업 시연, 글로벌 수출 및 투자 상담회, 농식품 홍보 및 판매,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시는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물, 전광판, 시정 소식지 등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공식 SNS, 서포터즈 활동을 통

농업 미래, 나주에서 열린다... 오는 10월 23일 개막

AI 농업혁신, K-농업 비전 등 나주서 7일간 선보여

한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며 박람회 열기를 더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시군 홍보관과 별도로 지역 내 13개 업체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가공식품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나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나주시푸드테크연구원센터 홍보관을 설치해 농업인의 가공 인프라와 미래 식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소개한다.

박람회장 내 식음시설인 '나주밥상' 미식관도 큰 기대를 모은다.

나주밥상 지정 업소 중 10곳이 참여해 곰탕, 흥어, 장어 등 나주 대표 음식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나주밥상 지정업소 방문 시 10% 할인, 황포돛배 50% 할인, 목사내야 숙박 30% 할인, 빛가람전망대 모노레일과 돌미끄럼틀 무료 이용,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숙박 할인, 우주드림 입장권 20% 할인 등 관광, 체험과 연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관람객 편의를 위해 박람회 개막 전까지 남평오거리 등 꽃담 설치, 혁신도시 입구-빛가람대교 걸이화분, 국지도 55호선 가로 경관 정비, 농업기술원 인근 도로 풀베기, 가로등 점검 등 도시환경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자 같은 기간 열리는 '2025 전라남도 정



원페스티벌'과 함께 나주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순천시x더핑크퐁컴퍼니 '핑크퐁 가든 워킹' 최초 론칭

10월 17일까지 놀 페이지 통해 참가 접수 가능, 선착순 4천명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글로벌 패밀리티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대표 김민석)가 함께 기획한 '핑크퐁 가든 워킹'이 오는 10월 19일에 첫 선을 보인다.

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 베베핀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글로벌 IP를 중심으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800억 뷰 및 약 2억 80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핑크퐁 가든 워킹'은 양사의 대표 IP인 루미·퐁이와 핑크퐁과의 콜라보를 통해 캐릭터 산업을 걷기 운동에 접목,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기획됐다. 뿐만 아니라 핑크퐁과 루미·퐁이 싱어송라이터로 특별 기획공연으로 제작 중이며 행사 당일 사전 이벤트도 관람할 수 있다.

가든 워킹 구간은 4차선 도로를 정원으로 바꾼 그린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을 한 바퀴 걷는 5km 단일 코스이다. 참가비는 3만 5천원이며 웰컴키트로 루미퐁이와 핑크퐁 캐릭터가 새겨진 티셔츠와 풍선 머리띠, 스포츠백, 1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및 쿠폰 등이 제공된다. 완주자들을 위한 한정판 캐릭터 메달도 준비됐다.

참가 연령 기준은 7세 이상(2018년생)이다. 오는 10월 17일 자정까지 놀 페이지(<https://leisure-web.yanolja.com/>)



leisure/10268304)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로 파급력 있는 캐릭터인 핑크퐁과 순천의 생태철학이 담긴 캐릭터 루미(흑두루미)와 퐁이(뽕뽕)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핑크퐁 가든 워킹은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울트라(2025. 10. 17. ~ 10. 19.)와 연계하여 사랑상품권 및 쿠폰 등이 제공된다. 완주자들을 위한 한정판 캐릭터 메달도 준비됐다.

순천/정성인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추석맞이 힐링 이벤트 풍성

송편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명절 체험 프로그램 운영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는 추석맞이 치유객을 위해 힐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추석 당일 휴무) 완도해양치유센터와 해양기후·문화 치유센터에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송편 만들기, 노르딕 워킹을 체험할 수 있으며 각각 완도해양치유센터 기본 프로그램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는 ▲한가위 보름달 ▲호작도 썬캐처 만들기 체

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해양기후치유센터에서는 ▲대형 윗놀이 포토존 ▲대형 제기차기 ▲투호장을 무료로 개방해 온 가족이 함께 추석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참여 방법은 10월 9일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체험일 전날까지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양기후·해수·해조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웰니스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센터 이용권은 연중 상시 판매하고 있으며 기본 프로그램은 100장 이상 구매 시 40%, 200장 이상 구매 시 50%이며,

프리미엄 프로그램은 50장 이상 구매 시 40%, 100장 이상 구매 시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진도군,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주간 캠페인' 개최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극복과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진도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17일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주간 운동(캠페인)을 진도읍 조금리 시장에서 개최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가 매년 9월 21일로 지정할 날이다.

이번 운동(캠페인)은 치매 예방에 대한 진도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에서 운영됐으며, 치매와 관련된 오엑스문제(OX 퀴즈)를 풀며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젊은 세대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었는데 참여자들은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고, 치매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진도군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진도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캠페인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으며,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인 진도군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담양군, 추석 연휴 대비 전통시장 합동 안전점검 나서

행정안전부·전남도와 현장 점검, 안전물품 지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와 함께 담양시장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담양군과 행정안전부가 인구소멸지역의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체결한 자매결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 개선, 후유 시한 전법 방지 설계 등 재난·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추석맞이 자매결연 지역을 찾아 특산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

탤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전기 안전용 전원차단 멀티탭을 기부하며 안전한 시장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가 최장 10일에 이르는 만큼 귀성객과 관광객의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지난 16일 실시한 민·관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기 배선 관리, 가스시설 안전, 소방 통로 확보 등 화재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추석 연휴 동안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구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

전담TF팀 구성해 역량 집중, 범군민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

전남 구례군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며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69개 군 중 6개소만이 선정될 예정으로, 대상지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례군은 인구소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 보장을 위해 7대 분야, 16개 사업의 기본사회 구현 시책을 발굴·시행해 왔으며, 기본사회지정정부협의회 회원으로서 참여 지자체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왔다. 기본소득 또한 지속적인 검토해 온 중요한 과제였으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공모가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사

업 유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민의 유치 열망을 알리기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군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군민의 유치 의지와 열망을 결집하기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할 경우, 2년간 864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지역에 순환될 뿐 아니라 귀농·귀촌 등 인구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24년 1분기 기준 생활인구 전국 1위를 달성한 만큼, 기본소득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어 시범사업 대상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구례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드시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리고 싶은 메시지는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작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에서 기어오르려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속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밋 장이나 될까. 색감처럼. 잠시. 미우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풍환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진 사람.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 것. 엔다 잘될 테니까 내가. 한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젠가 우연히.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